

“탄소중립, 인문학으로”… 광양시 ‘길 위의 인문학’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노력
중앙도서관서 11회 강연·탐방
343명 참여 환경문제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삶 위한 행동 전개”

광양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양시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양중앙도서관에서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회원회가 주관한 사업으로, ‘필(必) 환경 시대: 공(Zero) 감(減)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강연과 탐방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343명의 시민이 참여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의 있게 참여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광양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양시 제공

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현장 탐방이 진행됐다.

릴레이 강연은 박성훈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미세먼지는 정말로 공포의 대상일까?’로 시작됐다. 이 강연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미세먼지 수치와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물이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우리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 번째 강연인 ‘똥을 돈으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에서는 사이언스 월드의 ‘똥분위화페’ 개념을 소개하며, 당연히 게 여겨지는 폐기물이 가치 있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과 로컬 푸드를 활용하는 것이 탄소중

립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배우며, 환경 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다가올 지구의 모습을 다루며,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열 패시브하우스 전문 건축가는 제로 에너지 건축 철학을 소개하며, 자연 소재를 활용한 건축 기술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 기술이 농업에 접목된 ‘패시브 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집과 도시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나눴다.

프로그램은 현장중심의 학습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지난 5일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주거, 한옥과 현대 건축에 깃든 생태건축 요소 발견하기’를 주제로 인문 건축 기행을 떠났다. 이 기행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 기술이 적용된 ‘파파아 랩’과 순천의 ‘에너지 자립 마을’, ‘순천시립보안당’ 등을 방문하며 강연에

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했다. 과거의 건축 방법과 현재의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광양중앙도서관 문화공간 ‘하루’에서 진행된 이주는 알맹상점 대표의 강연 ‘버려진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에서는 쓰레기장에 배출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실천과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라 광양중앙도서관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개인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기탁식

총 930만원 전달

지난 20일 정인화 광양시장, 이광용 이사장, 기탁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접견실에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기탁식에서 △삼대광양불고기집 (대표 이형중) 500만원 △광양시새마을회(회장 서중모) 300만원 △(주)엘지엘리베이터(대표 박영) 100만원 △하늘꿈어린이집(원장 박영미)이 30만원을 기탁해 총 93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이형중 삼대광양불고기집 대표는 “광양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보육재단에 기부하게 됐다”라며 “광양시의 보육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서중모 광양시새마을회 회장은 “광양시

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아 후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영미 하늘꿈어린이집 원장은 “평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보육재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플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영(주)엘지엘리베이터 대표는 이번 기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보육재단을 후원해오며 광양시 보육 정책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용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어린이보육재단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광양시 아이들을 위한 보육사업에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애인 안전체험교육 실시 완료… 6월부터 185명 참여

광양시는 지난 6월13일부터 19일까지 8회에 걸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장애인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 총 185명(장애인 121명, 인솔자 6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장애인 안전체험교육은 지난해 광양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계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탈출 방법을 배우는 화재 안전교육 △교육용 소화기 체험 교육 △지하철과 승강

기 안전교육을 포함한 생활 안전교육 △응급 처치술인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처치술을 배우는 응급 안전교육 △집중 호우 시 안전한 방법으로 탈출하는 호우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생활·응급·호우·보건 안전 분야의 행동 요령을 습득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정용균 교육청소년과장은 “교육참여자분들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 요령을 습득하셨을 것이다”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23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태인동 주택 파손 현장 등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광양시 제공

정인화 광양시장, 호우피해 현장점검

광양시는 정인화 시장이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진월면 시설하우스 및 태인동 주택 파손 현장 등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1일 사이 양일간 272mm의 평균 강우량을 기록한 광양지역은 도로 침수(16개소), 수목 전도(3개소), 주택 파손(1개소), 마을안길 침하(1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양시는 호우주의보 및 광역적 호우경

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23개 부서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을 내렸다. 비상 근무에 돌입한 공무원들은 금호동 해안도로 등 20여 개소의 침수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41개 마을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풍수해 대비에 힘쓰는 결과, 조치가 필요

한 곳은 즉각적으로 대응해 긴급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인명피해·재산피해 발생 없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피해지역은 응급 복구가 완료됐지만, 폭우에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라며 관계부서 및 읍면동에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광양=안영준 기자

9월 읍면동장 회의… 가을행사 안전사고 예방 강조

광양시는 지난 20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읍면동 간 시정 현안을 공유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본청 실·단·과는 읍면동에 필요한 시정 주요 당면사항 및 홍보 내용을

전달하고 읍면동은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했으며, 주요 사항 전달 및 보고가 끝난 뒤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화 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즐길 거리를 충분히 마련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